

기 고

신기루 위의 번영, 두바이는 어디로 가는가

김 흥 종

객원선임연구위원

2026-03-19

사막의 도시는 늘 경이롭다. 한 달여 전 방문했던 두바이는 특히 그러했다. 지천에 피어 있는形形色색의 꽃들과 싱그러운 나뭇잎들이 따뜻한 햇볕에 흔들리듯 빛나고 있었고, 투명한 공기와 서늘한 바람은 사막의 열기를 부드럽게 식혀주고 있었다. 초현대적인 마천루와 흐트러짐 없는 정돈된 질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자본과 인재가 만들어낸 끝없는 번영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사막의 신기루 같은 압도적인 화려함은 거침없는 낙관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지금, 전쟁과 공습의 위험 앞에서 그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

두바이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다. 거의 나지 않던 석유에 대한 미련을 일찌감치 버리고, 무역과 물류, 금융과 관광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막툼 부족장의 전략적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다. 개방과 실용, 전략과 비전은 두바이의 핵심 가치였다. 필자가 처음 두바이를 방문했던 2000년대 초를 떠올리면 당시 공항은 작지만 아름다웠고, 크지 않았던 도심은 지금처럼 단정하여 오랜 중동 출장에서 쌓인 피로를 풀어주는 청량제와도 같았다.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초현대적 스카이라인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불과 20여년 만에 두바이는 주변의 다른 소국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하나의 전범이 됐다.

최근의 상황은 이 모형 위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에너지 수송의 불확실성만을 높이는 게 아니다.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흐름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두바이 번영의 전제 조건이었던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두바이는 바로 이 연결성 위에서 서 있었지만 이제 그 위로 짙은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고 있다.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안정 조건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걸프 국가들은 그동안 개방과 실용을 바탕으로 안보의 외부 위탁, 지정학적 중립성,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촘촘한 연결을 통해 번영을 일궈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 전략의 축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립성의 약화다. 지금까지 두바이는 걸프협력위원회(GCC)를 통한 주변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바다 건너 이란과는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유지하며 전략적 공존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갈등이 심화할수록 이러한 균형은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 지금까지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가. 기존의 질서가 유지된다면 걸프의 번영은 가능하겠지만 이번 사태는 그 전제 자체가 더 이상 자명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제 걸프 국가들은 전략의 재설계를 피할 수 없다. 첫째, 안보의 외부 위탁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자율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아랍국 사이에서 단순한 균형자에 머무는 것을 넘어 위기 완충 지대이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물류와 금융 중심의 단일 허브 모델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산업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 번영은 개방을 넘어 안정, 신뢰,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이 결합할 때 비로소 지속될 수 있다.

두바이의 마천루가 드론 공격에 노출되는 장면은 차라리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이 도시의 번영이 얼마나 정교한 전제 위에서 서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두바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래 두바이는 관리된 균형 위의 허브로 진화해야 한다. 신기루 같은 번영은 여전히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환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정되고 관리돼야 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걸프 지역의 변화는 한국에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에너지 수입과 해상 수송로, 그리고 중동과의 경제 협력에 연결된 한국 경제는 걸프의 안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걸프의 불안정은 곧 우리의 리스크로 전이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관계의 재설정이다. 변화하는 중동 질서 속에서 우리는 모든 당사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속고를 바탕으로 전략을 마련하며, 신중하되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더 넓은 외교적 접점과 한층 치밀한 경제안보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본 글은 3월 19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